eISSN 3140-409X

ISSUE BRIEF

이슈브리프 872호
(2026. 7.28)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의 의미

제872호

오일석 nusl2006@inss.re.kr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SS
www.inss.re.kr

국문초록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7월 24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AI 서밋(San Francisco AI Summit)’에 참석하여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대통령은 이 선언에서, 대한민국은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것이며, △공급을 넘어, AI를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나라가 되어 세계가 함께 성장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갈 것이고, △세계 AI 시장을 넓혀가는 글로벌 허브가 될 것이며, △AI가 더 책임 있고, 인간 중심적으로 발전하며, 그 성과가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는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였다.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은 미·중이 글로벌 AI 생태계 주도권을 두고 심각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AI 전략 기조를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이나 중국과는 달리 우리가 가진 제조업 경쟁력을 AI 전략에 결합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쟁력을 창출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더 큰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선언이 특히 ‘AI 기본사회’를 강조하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AI는 과거의 차별을 미래에 실행할 수 있는 현재의 도구가 될 수 있다. ‘AI 기본사회’는 AI 사용이나 활용은 물론 AI 자체에 대한 접근의 차이가 차별이나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인류 보편의 공통적 장치로 작동하여야 한다. ‘AI 기본사회’를 통해, 모든 국민이 교육과 의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받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까지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독점이 저지되고, 정치적 다양성이 존중받으며 민주주의 회복력이 지속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선언이 강조하고 있는 ‘책임있고 인간 중심적인 AI’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대체불가 글로벌 AI 공급망 핵심 국가, 글로벌 AI 허브, AI 기본사회, 민주주의 회복력, 책임있고 인간 중심적인 AI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발표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7월 24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AI 서밋(San Francisco AI Summit)’에 참석하여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대체불가의 글로벌 AI 협력 플랫폼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하면서, “미래 AI 비전을 먼저 제시하고, 세계와 함께 협력하며,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나라가 되고자 한다.”고 하였다.[1)]

이 대통령은 이 선언의 초반부에서 AI 경쟁의 의미와 공급망의 중요성 그리고 인간 중심의 가치와 글로벌 협력을 강조하였다. 우선 AI 혁명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현재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AI를 하나의 기술이나 산업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도 밝혔다. 즉 더 뛰어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경쟁을 넘어서, 더 많은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며, 풍부한 데이터를 연결하고, 이를 산업과 일상에 얼마나 빠르게 적용하느냐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세계 최고의 AI 모델도 첨단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 없이 작동될 수 없고, 아무리 뛰어난 반도체라도 AI라는 거대한 수요가 있어야 비로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AI 시대는 기술과 생산 역량, 데이터와 에너지, 시장과 인재가 하나의 거대한 공급망으로 연결되는 시대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공급망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구축하느냐가 지금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하였다. 이러한 과제에 직면하여 대한민국은 글로벌 AI 생산기지이자 혁신의 토양이 되고, 세계 기술과 자본, 인재와 아이디어가 연결되는 대체불가의 글로벌 AI 협력 플랫폼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하였다.

---

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8777

한편 이 대통령은 AI 발전에 따라 수반되는 새로운 문제에 대한 질문도 던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AI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과 일상 곳곳에 빠르게 적용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특정 국가만의 AI가 아니라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거대한 글로벌 AI 시장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AI 발전이 인간 중심의 가치 위에서 이루어지고, 그 혜택이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을까? 등이 그것이다.

선언의 주요 내용

이 대통령은 스스로 자문한 위 질문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것이며, △공급을 넘어, AI를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나라가 되어 세계가 함께 성장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갈 것이고, △세계 AI 시장을 넓혀가는 글로벌 허브가 될 것이며, △AI가 더 책임 있고, 인간 중심적으로 발전하며, 그 성과가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는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는 답을 내놓았다.

첫째,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의 도약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전 세계 기업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AI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기술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AI의 두뇌가 될 데이터센터와 현실에서 AI를 구현할 피지컬 AI를 연결해 글로벌 AI 생태계가 필요로 하는 핵심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세계적인 AI 허브를 구축할 것이라고 하였다.

둘째, AI 활용 및 성장 시장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AI를 산업 현장과 공공서비스, 국민의 일상 전반에 가장 빠르게 확산시켜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창출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인공지능이 연구실과 디지털 공간을 넘어 제조공장과 도시, 물류 현장 곳곳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글로벌 AI 테스트베드이자 생산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2026년말부터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여 국민의 일상은 물론 행정, 복지, 교육을 비롯한 공공서비스 전반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AI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였다.

셋째, 글로벌 허브와 관련하여, 다양한 국가들과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새로운 AI 시장을 만들고, 더 많은 나라의 국민들이 AI 혁신의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협력은 새로운 인재가 성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탄생하며, 새로운 서비스와 시장이 만들어지는 글로벌 AI 생태계의 공동 번영을 위한 투자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모두를 위한 AI, 인류의 난제 해결을 위한 AI'라는 비전 아래, 국제기구들과 함께 '글로벌 AI 허브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책임있고 인간 중심적이며 기회가 되는 AI와 관련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가 산업 현장과 국민의 삶 속에서 실제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전 세계와 함께 나누고자 한다고 하였다. 또한 AI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 머물지 않고 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새로운 분배 모델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였다. 기술의 진보와 경제적 성과만으로는 AI의 미래가 완성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AI 시대에도 모든 국민이 교육과 의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받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까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AI 기본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였다.

선언의 의미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은 미·중이 글로벌 AI 생태계 주도권을 두고 심각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AI 전략 기조를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이나 중국과 달리 우리가 가진 제조업 경쟁력을 AI 전략에 결합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쟁력을 창출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더 큰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세계 제3위의 AI 국가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AI 생태계 전반에 있어서는 미국이나 중국과의 격차가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 즉, 독자적인 프론티어 AI 모델의 개발, 대규모 데이터의 축적과 운용, 핵심 인력의 육성, 연관 산업이나 투입 예산의 규모 등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AI 생태계 전반에 대하여 추격을 시도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에 가까우며 오히려 AI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피지컬 AI를 연결하여 AI 생태계가 필요로 하는 핵심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AI 허브 구축 전략’은 우리의 AI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선언은 우리가 AI 활용의 문화적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AI 테스트베드이자 생산 플랫폼은 물론 새로운 AI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함을 자신있게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 제조 산업과 물류 현장은 물론 행정과 교육, 의료와 복지 등 공공서비스 전반에서 효율성과 신뢰성을 구축하여 왔다. 여기에 제조와 물류 그리고 공공서비스에서 빨리빨리로 대표되는 신속성은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고 세계인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인프라와 혁신적 서비스에 기초한 문화적 경쟁력은 글로벌 AI 테스트베드이자 생산 플랫폼으로서의

매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여기에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의 일상은 물론 공공서비스 전반에서 AI가 적극 활용된다면, 새로운 AI 수요가 실시간으로 창출하고 AI 시장 또한 역동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 선언은 AI에 대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기술 선도국 사이의 협력이나 개도국 지원을 위한 협력이 아니라 AI를 통한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인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AI 사용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공동 번영과 인류 난제 해결을 위한 AI 활용은, 온 인류에게 생존과 번영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창출함으로써, 긴장과 갈등 그리고 전쟁을 겪고 있는 작금의 지구촌에 평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AI 시대에는 데이터의 양과 질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사람을 통한 성장(Growth through people)’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특정인이 움직이는 거리, 접촉하는 사람, 선호하는 음식이나 취향, 제공받은 의료 서비스와 내용, 관심 있는 금융 정보, 검색한 전문 지식 등 사람들이 제공하는 데이터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동의 투자와 인적 물적 교류·협력으로 공동의 이해관계를 창출하고, AI 인프라와 기술을 통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것이다. 공동의 이해관계와 이익 및 정보의 공유는 긴장과 충돌을 지양하고 감염병, 자연재해, 기후변화 등 인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AI를 사용함으로써 평화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AI 협력을 기반으로 인류가 선진 행정, 금융, 유통, 교통, 치안 서비스에 쉽게 접근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정치, 사회, 문화적 기반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선언이 특히 ‘AI 기본사회’를 강조하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AI는 과거의 차별을 미래에 실행할 수 있는 현재의 도구가 될 수 있다.

‘AI 기본사회’는 AI 사용이나 활용은 물론 AI 자체에 대한 접근의 차이가 차별이나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인류 보편의 공통적 장치로 작동하여야 한다. ‘AI 기본사회’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보다 진일보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AI로 인한 효율성과 경제성은 AI의 혜택을 특정 플랫폼 기업에 집중시킴으로써 경제적 독점을 조장할 수 있다. 경제적 독점은, 정치와 제도의 견제를 따돌리고 독점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정치 시스템의 도입을 추구함에 따라, 정치적 독재로 이어질 수 있다. AI의 혜택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지 못한다면 AI의 미래는 정치적 독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AI 기본사회’를 통해, 모든 국민이 교육과 의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받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까지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독점이 저지되고, 정치적 다양성이 존중받으며 민주주의 회복력이 지속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선언이 강조하고 있는 ‘책임있고 인간 중심적인 AI’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 보편성과 당위적 측면에서 2026년 5월 25일 레오 14세 교황이 발표한 회칙 <고귀한 인류(Magnifica Humanitas)>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황은 이 회칙에서 AI가 군사적으로 악용되거나 소수의 권력 독점, 인간 배제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경계하였기 때문이다. 교황은 AI가 모두의 이익과 공동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 선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책임있고 인간 중심적인 AI’는 2026년 7월 16일 노벨상 수상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AI 전문가들이

서명한 ‘로마 선언’과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로마 선언’은 AI 기술이 소수의 국가와 거대 기업의 손에 집중될 경우 심각한 권력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광범위한 경제적·군사적·사회적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마 선언’은 점증하는 핵 군비 경쟁이 그에 못지않게 위험한 인공지능 경쟁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로마 선언’은 자동화 체계가 핵무기 발사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일이 결코 없도록 보장하고, 그러한 결정에 인간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조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